CTN봉사단, 라오스 국제봉사 물꼬

지난 12~17일, 라오스 방문 봉사현장 답사

CTN신문사와 교육타임즈가 후원해 설립한 CTN봉사단(단장 가금현)은 지난 12일부터 17일 일정으로 라오스 국제봉사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라오스 국제봉사는 캄보디아 한국어 학당 및 문화지원 및 교류사업에 이어 두 번째 행보다.

CTN봉사단이 라오스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봉사사업은 한국어 보급이다.

이에 현재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등이 라오스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컴퓨터를 활용 한국어 학당을 운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TN봉사단이 방문한 라오스 현지 마을은 태국과 강 하나를 두고 있는 국경 마을로 태국과 선박을 통한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져 부유한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육로를 통한 무역이 성행하면서 쇠퇴한 마을로 변했으나 수도인 비엔티안과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하며, 교육열이 뜨겁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현 단장은 캄보디아처럼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한국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강사를 통해 가르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곳 라오스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봉사사업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충1효문화연구원 가재산 원장께서 한국디지털코칭협회가 현재 미얀마에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보급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라오스에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TN봉사단은 CTN, 교육타임즈, CTN방송 직원과 지역사회와 세계사회에 한국어 보급 및 교육지원, 문화교류 등 봉사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성진 기자

제1회 소주가씨 숭의사 탐방 및 문학체험 빛났다

충남도문화재 300호 숭의사…소주가씨 중시조 3대 위패

문학체험 안면도 소나무문학관에서 진행

2충1효문화연구원(이사장 가갑손)은 지난 4일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숭의사(충남도문화제 300호)와 안면도 소나무문학관에서 제1회 소주가씨 숭의사 탐방 및 문학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소주가씨 자손들이 조상의 뿌리를 찾고, 조상들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충효 정신을 기리기 위해 중시조 3대를 모신 숭의사 탐방, 중시조가 보여준 문학의 얼을 되새기기 위한 문학체험 행사를 기획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권문선 태안군 문화해설사를 초빙, 숭의사를 처음 방문한 자손들에게 중시조 3대인 가유약 병부상서공, 가상 유격장군, 가침 병부종사관의 2충1효에 대한 설명과 숭의사 설립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해설사로부터 중시조인 3대가 자국도 아닌 타국의 전쟁터에 파견되어 할아버지(가유약)와 아버지(가상)가 전투에 참여하고, 손자(가침)은 두 분의 뒷바라지로 참여한 것은 전 세계 전쟁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며, 성씨의 시초가 되는 중시조의 위패를 모신 정문 및 사당을 나라(임금)으로부터 받은 것은 소주가씨가 유일한 것 같다는 그의 설명에 자손들은 감동을 받았다.

숭의사를 처음 방문했다는 자손 A는 우리 소주가씨가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국진 소주가씨종친회장은 "현재 우리 가씨가 숫자로 보면 타 성씨에 비해 적은 수지만 일당백을 자랑할 유전자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같은 훌륭한 조상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금현 2충1효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은 "우리 소주가씨는 철종임금으로부터 중시조 3대가 보여준 2충1효 정신을 기리고,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자 사당을 내려준 후 가문이 번창했지만, 일제 치하 36년 동안 가씨들은 관직은 물론 재산을 빼앗기고, 숭의사가 위치한 양잠리란 지명에서 잠 자를 누에 잠(蠶)에서 잠길 잠(潛)으로 바뀔 정도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일본으로부터 피해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숭의사에 모셔진 가유약 병부상서와 가상 유격장군의 활약이다.

1598년 당시 일본군이 패퇴 돌아갈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단 한 명의 일본군도 살려 보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그들의 퇴로를 막아섰던 인물이 가유약, 가상 부자였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라로부터 그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우뚝 서 있으니 일본의 횡포는 더욱 심했다고 하는 것이 가 사무총장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소주가씨 자손들은 이날 오전 숭의사 탐방 후 안면도에 위치한 소나무문학관으로 이동, 문학 작가들로부터 문학의 기초와 시 쓰는 법 등의 특강과 직접 쓴 뒤, 평가받고, 자신의 시를 직접 낭독하기까지 값진 문학체험을 경험했다.

이 자리에는 가세로 태안군수, 문영숙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가재산 2충1효문화연구원장 등이 참석 행사 참여자를 격려했다.

가갑손 이사장은 "우리 2충1효문화연구원은 조상님들이 보여준 훌륭한 업적을 자손들에게 널리 알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근본인 충효 정신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충1효문화연구원은 소주가씨 전자족보, 2충1효 전국백일장, 소주가씨대관 발행 등 소주가씨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찾아 엮어내는 등 가문의 발전을 위해 역할하고 있다.

/박순신 기자

신체장애인복지회 서산시지부는 어떤 단체인가?

UN에 가입된 유일한 단체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신체장애인 15개 장애 유형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특히 비장애인들도 가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차별 없는 사회,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장애인단체의 귀감이 되는 장점과 강점을 갖춘 행복 넘치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이다.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지난 1981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 제87호 등록단체이며, 장애인단체 효시이자 UN에 가입된 유일한 단체이다.

최선아 지부장

비영리단체 등록은 지난 2013년 4월 15일, 제182호로 등록됐다.

현재 중앙회를 비롯해 17개 도지회와 300여 시·군 지부가 활동 중이다.

한편 (사)한국신체장애인 충남복지회 김진우 회장과 서산시지부 최선아 지부장은 2015년 1월 2일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회를 위해 무보수로 봉사해오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2,850여명이 전문적인 사회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최선아 지부장은 사회복지학부 전공자로 지역사회에서 30년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사회봉사를 위해 석사과정까지 도전, 현재 5학기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그는 다양한 봉사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 한 바 있으며, (사)걸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 서산지구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진우 충남복지회회장은 7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 전공필수를 위해 인간봉사자 전문직에 도전하는 등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서산시장애인단체 연합회장, 마을통장, 노인회장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한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장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도전,화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신체장애인복지회를 응원합니다.

최선아 지부장은 장애인, 비장인, 세대, 계층 지역 간 벽을 넘어 동료 이웃, 사회와 협력해 인류에 공헌하는 복지회가 되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열린 사고와 행동으로 끊임없는 개선과 변화를 추구하며 화합과 창의정신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사)백두산부대전우회, 양구 부대방문 사단장 간담회 개최

지난 3일, 전우회 제5기 회장단 참여

(사)백두산부대전우회(회장 김명식)는 지난 3일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백두산부대(보병 제21사단)를 방문 사단장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전우회 측은 김명식 회장, 방우영 사무총장, 심상배 운영위원장, 이광희 행정위원장이 참석했고, 부대측에서는 남진오 사단장 등 방첩대장, 사단 주임원사 등이 참석, 부대와 전우회 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양구곰취축제 개막식인데도 불구하고 남진오 사단장과 군 간부들이 전우회 관계자를 따뜻하게 맞이 백두산부대와 전우회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게 됐다.

이날 전우회 측은 부대방문에 대해 건의했다.

전우회는 지난 7년간 부대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 10월초 양구의 대표적인 축제 양록제에 맞춰 부대방문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부대 측은 전우회원들이 근무했던 부대까지는 못가더라도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영체험(부대 내에서 숙식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부의 승인 여부 사항으로 승인 시 가능하나, 불허 시 숙식은 다른 곳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남게 됐다.

한편 이날 백두산부대전우회는 부대에 발전기금을 전달, 후배 전우들의 부대 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성진 기자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 충남 기후환경국 방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조기지정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춘수, 이하 서환위)는 8일 오전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구상 국장과 서산시 환경문제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환위 측에서는 김춘수 위원장과 가금현 사무국장(CTN/교육타임즈 발행인)이 참석했고, 도 측에서는 구상 국장과 심주택 서북부권환경관리팀장, 정주식 환경관리팀 주무관이 참석 가운데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주변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춘수 위원장은 우리 서산시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환경문제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서산시의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타 지역(울산, 여수석유화학단지) 사례에서 보듯 관·민·사의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의 종식은 국가의 법률 및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해결되어 지역주민 및 경제가 강남 3구를 앞서는 소득 및 생활환경이 정착되었다면 우리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도 가능한 일이 아니냐며, 충남도와 서산시의 관심에 이어 적극적인 행정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상 국장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여수·서산 대산중 울산·여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우리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만이 지정되지 못한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서산시와 대산공단협의회, 입주한 각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에 앞서 서산시 부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기업과 주민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했다고 말하고 그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신간안내

중년의 사치

저자 김영희 CTN·교육타임즈 객원기자

저자 김영희 작자는 "어려움을 견디고 고지에 오를 때 덤으로 주어지는 '중년의 사치'는 축복입니다."란다.

그는 "인생 2막, 내 안의 새로운 자아를 찾아 작은 반란을 독려하는 우아한 속삭임 누구나 살면서 '진정한 자아'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짜 잘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등 자아를 향한 물음표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중년이 되어서도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면서 "이 책은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은 이들에게 '삶의 반란을 일으켜라!'고 독려하는 우아한 속삭임이며,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며 품격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고, 품격 있는 삶 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저자는 "'아비투스(habitus)' 개념에 주목하여 품격 있는 삶, 즉 중년의 사치를 이루기 위한 길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평범한 옆집 엄마에서 수필가, 객원기자, 칼럼리스트, 스마트폰 책쓰기 코치가 될 수 있었던 저자의 아비투스를 소개함으로써 독자에게 용기를 북돋으며 현실적인 조언까지 놓치지 않는다.

이 책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답을 찾게끔 친절히 안내한다.

배움과 사랑, 관계, 성(性), 죽음, 봉사와 같은 다양한 주제로 완성한 글은 삶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따스한 울림을 줄 것이다.

김영희 작가는 현재 3060시니어연구원 원장, 끝끝내엄마육아연구소 대표, CTN·교육타임즈 객원기자, 수필가, 칼럼니스트, 디지털책글쓰기코칭협회 교육본부장, 책글쓰기대학 사무총장, 한국디지털문인협회 디지털책글쓰기 분과위원장, 코미희망장학회 단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끝내는 엄마 vs 끝내주는 엄마》, 《우리아이 부자습관》, 《스마트 시니어 폰맹 탈출하기》, 《아이만 빼고 다 바꿔라》 외 6권이 있다. /가금현 기자

한국디지털문인협회,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발간

내 인생 시리즈 다섯 번째 수필집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의 아버지 편지수록

저 마다의 상자를 열었을 때 특별한 보물들이 튀어나오듯 '선물'을 주제로 펼쳐낸 70인의 솔직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이 나왔다.

이번 수필집은 '선물'을 주제로 펼쳐낸 70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다.

디지털 문학을 선도하는 한국디지털문인협회가 발간하는 '내 인생 시리즈 5'편인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특별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찬 보물상자처럼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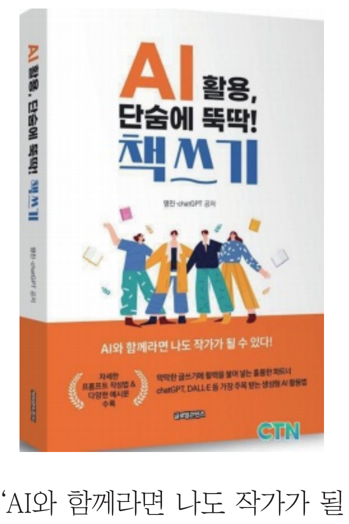
군 시절 이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의 편지로 인해 건강한 군생활은 물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된 내용, 대를 이은 출산의 순간을 생생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만난 특별한 인연에 대해 되짚어보는 등 솔직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빼곡하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했던 순간과 감정을 다채롭게 그려내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CTN신문과 교육타임즈 가금현 발행인의 '아버지의 편지'란 제목의 수필이 이 수필집의 대문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진 기자

AI 활용, 단숨에 뚝딱! 책쓰기

저자 명진(이성숙)



'AI와 함께라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쓰기와 책쓰기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성형 AI, chatGPT 같은 단어들은 일반 사람에게 생소했다. 하지만 이제 학생부터 직장인, 시니어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

대학생에게는 과제 할 때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고, 직장인에게는 든든한 업무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글쓰기와 책쓰기에 첫 발을 들인 누군가에게는 막막한 글쓰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더 나은 글쓰기를 위해 고민하는 모든 이를 위해 탄생하였다.

chatGPT, DALL·E 등 현재 가장 주목 받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책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IT 실용서이다.

구성은 총 16강으로 나눠져 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기 쉽도록 각 주제에 맞는 예문을 많이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함께 알려줌으로써 AI는 인간의 파트너임을 강조한다.

AI는 무수한 정보와 빠른 작업 속도를 갖추었지만 이를 활용해 무한한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다. 이 책은 그 점을 핵심에 둔 채 16개의 챕터를 이어 나간다.

/가금현 기자